

데스크 칼럼

정 현 아

산업경제부장



맹자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결행했다. 장례식장 근처에서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자 상가 근처로 옮겼고, 또 장사하는 것을 따라 하자 학교 근처로 옮겨 결국 공부에 몰두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삶의 터전을 옮긴 어머니의 용기와 결단. 바로 ‘맹모 삼천리교’다.

맹자의 어머니는 참 대단하다. 이사를 세 번이나 하다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 회생하고 감수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터. 맹자라고 순순히 따랐겠는가. 정정 거리는 맹자를 달랬던지 놀랐던지 삼시세끼 도전을 해서 아들을 세계적인 석학으로 길러냈다.

2004년 가을, 당시 광주 한복판에 있던 전남도청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무안군 남야리로의 이전을 앞두고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도지사는 “남야에 가기 싫은 직원은 퇴직하시라”며 강수를 뒀다. 도청은 예정대로 남야으로 이전을 마쳤고, 직원들은 99% 따라 내려왔다. 덕분에 남야와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있던 목포 하당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남야 택지지구의 아파트는 불타나게 팔려나갔다. 2010년대 초반 남야신도시가 번창하던 시기. 한 선배 기자가 조언을 구해왔다. 광주 광산구의 아파트를 팔고 이제 막 조성을 마친 나주혁신도시로 이사를 해볼까 하는데 결단이 어렵다는 거였다. 남야신도시의 성장 사례를 얘기하며 나주혁신도시 이사에 찬성을 표했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세계적인 권투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어느 선수에게나 계획은 있다. 링에 올라가서 무참히 맞기 전까지는...” 나주혁신도시도 일대만 청사진과는 달리 힘을 쓰지 못했다. 한전을 비롯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은 주말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울로 귀향했다. 서울 가는 KTX는 금요일 오후부터 매진이었고 주말 내내 도시는 텅텅 비었다. 혼란하는 거리기들 때문에 해가 지면 길거리는 유령도시로 변했다. 장사가 잘 될 리 만무했고, 집값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다.

나주혁신도시가 부흥하지 못한 이유를 세 가지로 좁혀보겠다. 첫째는 도시의 매력, 즉 유인 요인의 부재였다. 그중에서도 교육 문제가 선두가 아니었을까.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세 번이나 이사하며 자식을 키워낸 맹자 어머니처럼 한국의 부모들도 교육이라면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운하다. 이전 초기 국제학교, 외국 어고등학교 등 특목고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공교육 저해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거창한 명분에 밀려 특목고는 설치되지 않았다. 한참 뒤에 에너지공대가 들어섰지만,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맹자 어머니 모시기’부터 실패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정주 요인의 부재였다. 남도의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에 더해 혁신도시 한가운데 18층 규모의 골프장을 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꽤나 군침이 도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몇 해 가지 않아 골프장을 에너지공대 부지로 제공하면서 핵심 유인 요인인 골프장이 사라지고 말았다.

세 번째는 이전 기관 확장과 시너지 효과의 제한이다. 한전과 관련 기관, 일부 IT와 농업 관련 기관이 이전을 해왔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한전이 주축인 이전 기관에 더해 더 많은 관련 공공·준공영·민간기업이 이전을 해와야 도시가 커지고 시너지도 생긴다. 하지만 추가 이전은 없었다. 민간기업은 주소지만 나주에 두고 연구소나 지사 명목으로 서울에서 근무하며 한전이나 기타 기관을 상대로 영업했다. 정부가 강제로 옮기라 해서 오가는 했지만 마음은 콩밭, 서울에 있었다.

당초 지난 6월 발표 예정이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8월로 연기됐다가 11월로 다시 미뤄졌다. 한전 산하이면서도 5개로 나눠있던 발전사들을 통합해 재탄생한 한국발전은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현 정부가 이전 기관 노동자들의 반발을 돌파할 수 있을지, 나아가 국정 동력을 회복·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몫이자 지방균형발전론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문제이기도 하다.

덧붙여 지방정부도 제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함은 자명하다. 이전 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이 나주로 순순히 따라오게 할 매력과 흡인 요인을 만드는 것. 일단 내려온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묶어둘 묘안을 만드는 일. 이른바 ‘오신 손님 잘 대접하고 자리잡게 하는 노력’ 말이다. 그러나 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있다. 한국발전을 비롯해 나주로 모셔와야 할 기관을 모색하고 또 정부를 상대로 요구, 강제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기적으로 딱 찍어서 달라는 강단과 실행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한 번 실패는 교훈이지만 실패가 반복되면 무능이 된다.

하나된 고속철도, 지역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통합 운영 첫 달 전국 고속열차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31만2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만9000여 명보다 약 3만3000명 늘었다.

순천과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의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은 통합 전 9000여 명에서 1만1000여 명으로, 약 2000 명 증가했다. 지역의 대표 관문인 순천역에서는 하루 평균 6000여 명이 고속열차를 이용해 전년보다 약 1000명 늘었다. 지역을 오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추석 연휴에는 그 흐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휴 기간 전남본부 관내 고속열차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은 1만6000여 명에 달했다. 지난해 1만4000여 명보다 약 2000 명 늘어난 수치다.

추석 연휴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가을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역 관광과 상권에도 활기를 더했다. 고속철도 통합이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과제는 이 성과를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가는 일이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이용 수요와 혼잡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객 의견을 반영해 열차 운행 시간과 환승 체계를 꾸준히 다듬어갈 계획이다.

이울러, 이용객들이 열차 시간에 맞춰 역까지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손잡고 시내·시외버스, 택시, 렌터카 등 연계교통과 주차장 이용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철도와 지역 교통이 자연스럽게 이어질수록 여행의 편의도 높아진다. 역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편해야 통합의 효과가 비로소 지역민의 일상에서 완성될 수 있다.

순천, 여수, 고흥, 구례 등 전남 동부권의 풍부한 관광 자원과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의 산업 기반을 살리는 일에도 힘을 보탬 것이다. 유관기관, 기업과 협력해 관광객 유치와 산업 간 교류를 뒷받침하고, 철도가 지역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과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객이 느끼는 불편을 하나하나 살피 직원의 응대부터 역사 시설까지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되는 철도, 함께하는 더 큰 행복’이라는 통합 고속철도 슬로건처럼, 코레일 전남본부는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을 연결하고, 전남 동부권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열어 가겠다. 철도에 보내주신 지역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통합의 성과를 일상의 편리함과 지역의 활력으로 돌려드리겠다.

중앙아시아와 전남광주, 새로운 길 열어야 할 때

국가와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독립 35주년을 기념해 탈라스 주에서 열린 국가적 행사에 광주예술단이 공식 초청됐다. 키르기스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마나스(Manas)’와 광주의 판소리(Pansori)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출발했지만, 사람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의 기억을 이어온다는 점에서 문화적 접점을 갖고 있다. 극단장은 마나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사업을 광주문화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쌓아온 양 기관의 신뢰가 단순한 공연 교류를 넘어 새로운 문화협약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새롭게 문화교류 협약을 맺은 나브바호르 예술단과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산하 예술단인 나브바호르 예술단은 국가적 지원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다. 이번 방문에서는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체스올림픽이드 개막공연을 관람하며 세계적인 국제행사와 도시의 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나브바호르 예술단 역시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방한 당시 공식 일정에 참여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협력 기반은 향후 전남광주와 우즈베키스탄 간 공연예술 교류를 확대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나라에서 확인한 모습은 분명했다. 중앙아시아는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화의 결은 의외로 광주와 닮아 있었다. 이제 중앙아시아와의 교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의 문화예술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문화적 자산과 경험을 나누고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상호 호혜적인 문화예술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관과 기관, 도시와 도시,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에는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다. 광산구에는 고려인 마을이 자리하고 있으며, 2027년은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정착 90주년을 맞는 해다. 2023년 시작된 교류의 물결은 이제 국가적 행사에 광주예술단이 초청되고 중앙아시아 주요 문화예술기관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맺는 단계까지 성장했다. 전남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물꼬를 더 넓고 깊은 길로 만드는 일이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이 국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면, 지역에서는 도시와 기관, 예술가와 시민을 연결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협력으로 그 길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문화재단이 만들어가야 할 문화교류의 새로운 역할일 것이다.

사설

전남광주 상수관 노후화…정비 속도 내야

전남광주지역 상수관로의 3분의 1이 설치 20년이 넘는 노후관로라고 한다

올해 기준 전남광주지역 상수관로 총연장은 2만7434.7km로 집계됐는데 이중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된 관로는 8964.9km로 전체의 32.7%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관로중 30년 이상이 전체의 14.5%(3975.8km)나 됐다. 광주의 경우 전체 상수관로(4138.3km)중 20년 이상 된 관로가 2533.2km로 61.2%를 차지했으며 이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28.8%(1191.8km)였다.

광주의 30년 이상 관로 비중은 서울 41.2%, 대구 35.5%에 이어 전국 시·도중 세 번째로 높다.

전남은 20년 이상된 노후관로(6431.7km)가 전체(2만3296.4km)의 27.6%로 광주보다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했다.

하지만 목표는 30년 이상 된 관로 비중이 전체의 5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관로의 절반 이상의 노후화됐다는 것이다.

이런 수도관 노후화는 방지할수록 누수와 수질 사고, 복구 비용으로 되돌아오는 문제여서 노후관로 정비가 시급하지만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정비사업은 광주 104km, 전남 617km 등 총 721km, 사업 예산은 광주 51억5800만원, 전남 475억7300만원으로 모두 527억3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전남광주 20년 이상 관로의 8% 규모다.

특히 유수율 중심의 노후관로 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도물중 요금 수입으로 연결되는 물의 비율을 말하는 데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광주)는 관로가 오래됐더라도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방식을 유수율과 함께 관로의 사용 기간과 실제 상태, 누수·사고 이력,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정교하게 설정하는 등 재정비해야 한다.

또 누수·수질 사고·지반침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비 사업 예산의 선제적 확대도 절실하다.

민간 소각시설 폐기열 버려지는 이유

전남광주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열에너지의 60% 가가이가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 소각열은 산업시설의 공정열이나 지역 난방,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주지역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의 열에너지 미회수율은 71.1%로 전국 시도중 미회수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의 미회수율은 58.0%였다.

이 때문에 회수되지 못한 열에너지 규모도 적지 않았다.

전남은 이 기간 민간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열에너지(202만Gcal)중 117만Gcal가량을 회수하지 못했고 광주는 23만Gcal 중 16만Gcal가량을 활용하지 못했다.

민간소각 시설의 열에너지 회수능력은 공공 소각 시설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 공공 소각시설의 경우 이 기간 폐기물 491만t을 소각해 발생한 열에너지의 95.8%를 회수·활용했다. 미회수율은 4.2%에 그쳤다.

반면 민간 소각시설은 약 541만t을 소각해 열에너지 68.8%를 회수했다. 공공시설보다 약 7.5배 높은 31.2%를 회수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이들 소각 시설의 효율문제가 아닌 공급 인프라 차이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공공시설은 공적 자금으로 신도시 지역난방망 등과 연결되는데 반해 민간시설은 열 공급망을 개별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즉, 열을 회수하는 설비와 기술, 활용처가 충분히 연계돼 있지 않아 상당량의 열에너지가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수도권부터 시행한 생활폐기물 직매입 금지를 오는 2030년 전국으로 확대기로 해 폐기물 소각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그만큼 민간소각시설 발생 열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이들 시설들의 열 회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소각 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열 수요처와의 연계, 배관망 구축지원, 관련 기술지원 등 실효성있는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차재진	사 장 정영민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200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지)	독자관리국 370-7080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광남신문과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 (gwangnam.co.kr)와 광남신문(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